

8. 곰태곤이 쓰러지자 나타난 돌동부

우리 박물관에는 돌콩, 돌팥, 돌동부 등 야생종들이 꽤 많다. 그중에는 야생콩 박사 정규화 박사가 수집해 기증한 것이 많다. 다만 돌팥과 돌동부는 우리가 직접 수집한 자원들이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정박사가 기증한 대부분의 자원은 진주 남강변에서 수집했다고만 알려져 있고 정확한 사연은 알 수가 없으나 유독 우리가 수집한 돌동부의 수집 사연이 깊기 때문이다.

돌동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파리 동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앞서 조선오이를 소개하면서 우리 마을의 장씨 집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개파리 동부도 바로 그 집안에서 찾은 경우다. 우리 박물관에 우리 토종 종자가 전부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나기까지는 3년 정도 걸렸다.

- 별일이여. 개는 농사도 개갈 안 나게 지면서 씨종자는 또 워디서 모았다?
- 굼뱅이도 재주는 재주여!
- 워메! 이걸 참말로 직접 다 모은 거?
- 맨날 놀려 다니더니 그냥 다닌 게 아닌 게벼?
- 왓다! 많기도 허다. 하긴 그려. 예전엔 떼기 별로 틈만 나면 심어댔응께. 괜히 갈 되면 나오는 거 익이 바쁘기만 했지.

그렇게 박물관 소문이 거의 퍼질 무렵, 우리의 산책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다. 그는 ‘갱변밭’에 요것조것 부쳐 먹고 있었다. 우리는 엄니에게도 그랬지만, 웬만하면 노인들이 일삼아 농사짓는 것을 말리고 소일삼아 농사를 지으라고 권하곤 했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농사에는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 워, 박물관에야 익는 게 익것지만, 요건 우리 것잉께 갖다 놀라면 갖다 놔. 오래됐응께.
- 월매나 됐는디?

토종을 수집할 때 언제부터 심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토종을 가리는 한 단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동부는 한 번도 육종을 한 적이 없으니 보이면 무조건 토종이다.

- 글쎄? 그게 말여. 언제 찍인지 물론다는 거. 그럼께 그게.... 하여간 시어머니가 꼭 밥에 넣어 먹으라고.... 누구한티도 주지 말라고....

아주머니가 말하면서 옆에서 아무렇게나 찢어놓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온 동부를 만지작거렸다.

- 요게 개파리 동부여

그분이 주글주글한 손바닥 위에 거뭇거뭇한 흔한 개파리 동부를 내놓았다. 그녀의 흙손을 닦아있었다.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쓰는 아주머니의 삶은 새로운 청년으로의 길이었다. 자식이 한마을에 살고 있지만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다. 젊어서는 아들들이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사춘기를 거치며 부모의 지지를 거절했다면, 어느덧 늙어버린 아주머니는 이제 자식들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늙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개파리 동부의 지주대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어쩌면 지주대 없이 독립하기 위한 발버둥일지도 모른다. 이 아주머니의 개파리 동부를 닦은 독립운동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아줌니 화이팅! 그렇게 들어 온 개파리 동부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들의 저녁 산책길은 정해져 있

다. 아침에는 뒷동산을 올라가지만, 저녁때는 넛가를 중심으로 다니기 좋은 길을 왕복한다.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산책하러 나갔는데, 김태곤 씨 논을 지나다가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논둑에 동부가 왜소하고 엉성했지만, 꽃꽃이 서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동부였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수풀 속에 덮여 빠져나오려고 틈을 찾고 있었지만 분명 동부였다. 자세히 보니 사방에서 군락 하며 자생하고 있었다. 이런, 이런! 이걸 못 보다니.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이 신기했다.

이 논의 역사는 매우 짧다. 나는 농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다 보면 늘 어린 시절에 닿게 된다. 이곳은 오래전에는 사금을 채취하던 ‘사금갱굴’이었다. 사금 채취 특성상 자갈은 굽어내고 모래만 걸려내다 보니 한쪽은 자갈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자갈밭 나대지가 돼 버렸다. 나대지엔 나팔꽃만 무성했다. 사금 채취가 끝날 무렵 일제 강점기에 신작로가 나오고 큰 길이 생겼다. 문제는 이 신작로가 흙으로 만들어져 자동차가 다니면 늘 팽기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자갈 부역이었다. 집집마다 구역을 나누어 신작로 가에 팽긴 웅덩 이를 메울 자갈을 쌓아두어야 했다. 사람들은 자갈밭으로 대들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갈 부역에 사람들은 흔하게 쓰지 않고 야금야금 자갈을 파내기 시작했다. 이 부역은 내가 커서도 계속됐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갈은 없어지고 모래만 쌓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래 나대지에 동부도 심고 팥도 심었다. 정확히 누구 거라 경계 짓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경계를 다투지 않았다. 두 량껏 심었고, 깜량껏 거뒀다. 그런데 농지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주인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 모두가 넛가로만 여겼던 그 땅의 주인은 친일파 정주영의 후손이었다. 눈 밝은 탓이겠거니 하고 있다가 바로 부지런한 김태곤 씨가 그 땅을 구입하게 된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 김태곤 씨를 곰태곤이라 부른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다. 곰처럼 일만 하는 분이라서 붙인 별명이다. 쉴 새 없이 일만 한다. 한눈을 판 적도 없이 땅만 팠다. 오죽했으면 안식구가 농업인상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변하기까지 했을까.

내가 처음 농사지를 때, 못자리 하나 만들지 못하고 모 침 하나 묶지 못할 때 나와 품앗이해 준 분이다. 당시 내 품과 그분의 품을 맞바꾼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역시 곰태곤이 맞다고 수근댔다. 나는 그의 반품과도 비교가 안 됐다. 그는 팔십이 넘도록 그렇게 일만 했다. 그 와의 동등한 품 바꾸기는 제초제와 기계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됐다.

제초제와 기계는 많은 것을 바꾸었다. 특히 제초제는 신이 준 선물이었다. 지금의 친환경 논란은 가당치도 않았다. 건강한 밥상을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부려진 허리 값을 물고 나서야 해야 할 이야기였다. 제초제가 농사꾼 허리를 살렸다면, 기계는 농사지 을 나이를 늘렸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그가 팔십이 훨씬 넘을 때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덕분에 그의 논둑에는 풀 한 포기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품새 없이 뿌려대는 통에 어떻게 살아났을까. 질기고 질긴 돌동부의 한 많은 삶의 투쟁을 살펴보니 이랬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있었다. 풀이 먼저 나 무성했고, 일찍 나왔던 동부는 김태곤 씨가 뿌린 제초제에 맞아 죽고, 늦여름 장마통에 그 풀 속을 뚫고 남아있던 씨들이 발아하여 돌동부들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돌동부들은 일 년을 쪼개어 계속 발아했고, 나오는 대로 김태곤씨가 뿌린 제초제에 맞아 죽다가 마지막 벼가 팔 무렵 늦게 발아된 것들이 넝쿨은 제대로 뻗지 못하고 팥처럼 서서 열매 몇 알을 급하게 맺혀 종족을 남겼던 것이다. 가을에 피는 꽃, 철없는

가을 동부 꽃, 그러나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생존의 몸부림. 늦 제초제에 맞아 병들어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고 그 끝에 아등바등 꽃을 피우는 심사에 그 삶의 몸부림이 숨어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은 팥처럼 넝쿨도 없이 서 있는 동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던지, 그렇게 부지런했던 김태곤 씨가 마지막으로 트랙터 시동을 건 것은 여든다섯 살이 되던 5월이었다. 제초제를 뿐이라고 모내기하려고 써레질을 마치고 논둑을 넘다가 텔썩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몸을 많이 상한 것이다. 그 뒤에는 병원에 오가며 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염원에도 다시는 트랙터에 오르지 못했고 더 이상 논둑에 제초제를 치지 못했다. 곰태곤이라는 이름도 때를 맞춰 없어졌다.

곰태곤이 쓰러지자 훌연히 나타난 돌동부였다. 스러진 곰태곤씨에게는 불행이었지만, 돌동부에게는 그 짬이 바로 생존의 시작이 활짝 편 것이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새팥인 줄만 알고 있었다. 세심히 넝쿨을 살피지 않았으면 팥으로 기록할 뻔했다. 동부의 잎은 부드럽고 매끄럽지만, 팥은 거칠고 잔털이 많다. 야생팥과 야생동부는 열매만 보고는 구분하기 힘들다.

이듬해는 새롭게 시작한 논 주인에게 이곳은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부탁해 논둑에 온통 동부로 뒤덮어버렸다. 물론 돌팥도 나왔다. 새콩들도 엄청나게 나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곳에 크기의 차이. 모양의 차이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가 언제 적인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누구 주지 말고 밥맛없을 때 넣어 먹으라고 남긴 개파리 동부의 원종일지 모른다.

그 모래밭에서 경계 없이 심어 먹던 동부가 한 주먹은 그 아주머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지금 까지 변함없이 지켜졌고, 땅 위에 떨어진 동부는 퇴화하고, 퇴화하면서 돌동부로 남았는지 모른다. 어쨌든 지금 박물관에서는 이 돌동부와 돌팥을 다른 종들과 자연 교잡시키면서 언제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까 살피고 있다. 돌동부는 곰태곤의 굳은 삶처럼 잘 삶아지지 않는다. 애써 삶아 먹어보면 개파리동부와 맛이 비슷하다.